

자회사 흡수하며 몸집 키우자...수제맥주 업계 '상장 준비' 한창

수제맥주 업체 세븐브로이가 새해 상장 준비에 들어갔다. 소형 면허 법인을 보유한 자회사를 흡수하며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지배구조 개편에 착수했다. 앞서 상장한 제주맥주에 이어 세븐브로이 등 수제 맥주 업체들이 IPO와 투자 유치 등 규모 불리기에 들어갔다.

22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세븐브로이맥주는 자회사 세븐브로이양평, 세븐브로이청운, 세븐비어를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소규모 주식교환을 최근 완료했다. 세븐브로이는 국내 중소기업 가운데 최초로 맥주 제조 면허를 획득한 기업이다. 세븐브로이양평과 세븐비어는 소형 면허 법인을 갖추고 맥주 생산 공장을 관리하고 있다. 세븐브로이청운은 맥주공장 건립 컨설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세븐브로이맥주는 각 자회사 주식 1주당 세븐브로이맥주 보통주 9주를 신규로 발행해 교부한다. 올해 중으로 신규 교부를 마칠 예정이다. 이번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자회사들은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합병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상장주관사로 선정을 마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는 실물증권을 전자증권으로 전환하며 상장 절차에 착수했다. 새해 상장이 유력하다.

세븐브로이맥주가 IPO를 앞두고 지배구조 개편에 들어간 이유는 공모 과정에서 보다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

**세븐브로이, 완전자회사 편입·합병
주식 교환 통해 지배구조 개편 나서
IPO 앞두고 기업가치 높이기 주력**

**2024년 코스닥 진입 목표 추진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도 주목**

다. 실제 앞서 상장한 제주맥주의 경우 영업활동 등을 통해 얻은 이익(EBITDA)을 기준으로 비교 가치를 산정했다. 주류산업의 경우 설비투자에 따른 감가상각이 기업가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세븐브로이맥주 역시 인기를 얻고 있는 고품질 캔맥주 등 자회사의 영업이익을 모회사의 기업가치에 반영하고, 단위당 고정비는 줄이기 위해 지배구조 개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맥주, 세븐브로이맥주에 이어 여타 수제맥주 업체도 몸집 불리기에 한창이다. 외형 성장을 위한 IPO는 물론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카브루는 2023년 IPO 추진을 위해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

카브루는 앞서 2019~2020년 두 해 동안 약 1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올해 8월 완공한 비전 브루어리(제4양조장) 설립에만 100억원 이상 자금을 투입했다. 제4브루어리 완공으로 카브루의 수제맥주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총 4개로 늘었다. 새해 공장 증축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제2브루어리 착공에 들어간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는 2024년 코스닥 상장이 목표다. 제2브루어리가 새해 3월 완공되면 연 900만리터를 생산할 수 있다. 투자 유치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국내 맥주기업 중 최초로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올해 초에는 LB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8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

수제맥주업계가 외형 확장에 나서는 것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익성 실현이 가능해져서다. 수제맥주 산업은 밀과 홉 등 원재료를 대부분 수입하고 있고 대량 생산을 위해 양조장을 비롯한 설비 구축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고도의 설비를 갖춰야 효율적인 생산도 이뤄질 수 있다.

수제맥주 시장 성장세도 한뼘했다. 주세법종량세 개정과 일본 맥주 불매운동 등 여파로 호재를 맞았다. 지난해 기준 수제맥주 시장규모는 약 1200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전년에 비해 약 37% 이상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수제맥주 업계 관계자는 "국내 수제맥주의 경우 아직 전체 주류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에 불과하지만 연평균 30~40%씩 성장하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박효주기자

'황비와 웅비'가 달라졌어요



한국거래소, MZ세대 취향 맞춤형 '캐릭터' 선보여

한국거래소 캐릭터 '황비'와 '웅비'가 MZ세대 취향을 반영한 귀여운 캐릭터로 재탄생했다.

한국거래소는 기존의 각진 황비웅비를 새롭게 디자인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황비와 웅비는 두발을 딛고 서 양 손이 자유롭기에 머리를 굽적이거나, 두 손을 모으는 등 기존 캐릭터들이 할 수 없던 다양한 포즈를 연출할 수 있다.

증권가에서 황소는 상승장을 기원하는 동물로 대접받아 왔다. 반면 곰은 공격할 때 앞발을 내려치는 이미지로 인해 하락장의 상징 같은 동물이 됐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0년부터 황소와 곰을 형상화한 캐릭터 황비와 웅비를 제작해 다방면으로 활용해 왔다.

상승장을 나타내는 붉은 색의 황소 '황비'

와 하락장을 나타내는 푸른 색의 곰 '웅비'는 그간 한국거래소의 메인 캐릭터로서 고객들과 소통했다. 큰 눈과 진한 눈썹, 그리고 또렷하고 강한 표정으로 신뢰감 있고 든직한 모습을 어필했다.

다만 최근 주식투자, 재테크 열풍 등이 불면서 소위 '주린이'에게 보다 친근하고 재미있게 한국거래소를 소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귀여운 캐릭터들이 직접 한국거래소의 역할에 대하여 소개, 주린이들이 한국거래소를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의도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황비와 웅비 외에도 시장 참여자나 작전세력 등을 형상화한 새로운 캐릭터를 준비하고 있으며, 캐릭터마다 고유의 스토리를 부여함으로써 거래소만의 황비·웅비 유니버스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CJ제일제당 2050 탄소중립 중장기 로드맵



CJ제일제당 '탄소중립 로드맵' 제시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전환"

식품업계 최초 기후 대응 보고서 발간
온실가스·폐기물 등 12대 과제 도출
2030년까지 미주·유럽부터 실시 예정

CJ제일제당은 '2050년 탄소중립 및 제로 웨이스트(Carbon Neutral&Zero Waste) 실현'을 선언했다고 22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30년 중장기 목표와 전략 등을 담은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았다. 특히 식품업계 최초로 'CJ제일제당 기후변화 대응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CJ제일제당의 약속"이라는 메일을 임직원들에게 보내 "단순한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사의 전 사업영역에 걸쳐 부정적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선언"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저탄소화와 신기술 개발·확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이며,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에게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우위가 될 것이고 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튼실한 열쇠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2050년 탄소중립 및 제로 웨이스트' 실현을 위한 중장기 핵심 전략 방향은 △사업장의 탈(脫)탄소 에너지 전환 △제품과 솔루션의 친환경적인 혁신 △공급망·협력사 등 가치사슬 전반의 그린 파트너십 구축 세 가지다. 3대 핵심

전략을 토대로 온실가스·에너지·물·폐기물 등 영역별로 12가지 과제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는 전 사업장의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25% 감축한다. 전력 에너지원은 2030년까지 미주·유럽 사업장부터 기존 화석연료를 재생·바이오 에너지로 100% 전환하고 2050년 아시아 지역까지 확대한다.

물 사용의 효율성도 높이고 매립 폐기물은 제로화한다. 수자원인 취약한 지역임에도 취수량이 많은 중국, 인도네시아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물 사용 저감 설비투자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제품 생산량당 취수량을 10~20% 줄인다. 매립 폐기물은 현재 제로화 수준(0.4%)인 국내 역량을 글로벌로도 확대해 2030년까지 국내의 전 사업장 매립 제로화를 추진한다. 식품 기부 및 재활용을 확대해 식품 손실·폐기량도 50% 감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제품 개발과 솔루션 확대에도 힘쓴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인 PHA를 활용한 제품이나 대체육, 배양육 기반의 식품, 푸드 업 사이클링 등 친환경 제품 출시를 확대한다.

탄소중립에 필요한 투자 재원은 ESG 연계 대출 등이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최근 CJ제일제당은 싱가포르 DBS은행과 1500억원 규모의 'ESG경영 연계 대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통상적인 회사채 발행 대비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했으며, 협의한 ESG목표를 달성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인하 인센티브를 적용 받는다.

박효주기자 phj20@etnews.com

시상담원, 채용하셨나요?

고객의 마음까지 읽는 시컨텍센터

- 인/아웃바운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지능형 AI
- 음성인식, 자연어 이해 등 대화형 기술의 AI
- 콜봇, 챗봇, UMS 등 통합연계형 옴니채널 AI

드림라인 DREAMLINE

☎ 1877-1817 🌐 www.dreamline.co.kr

뉴스 브리핑

예상 도착시간 추가 '장보기 2.0' 선포

롯데온은 예상 도착시간 등을 추가한 장보기 서비스 2.0을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많은 상품을 노출하는 대신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앞세웠다.

이번 서비스 2.0의 핵심은 고객 관점에서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배송지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배송 서비스 및 예상 도착시간을 안내하고 동선을 정비했다.

티비티 파트너스 등 30억 규모 투자 유치

하이메디는 30억원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티비티 파트너스(TBT)가 주도했다. 글로벌 벤처캐피털인 화이트스 타캐피탈이 후속 투자했다. 하이메디는 외국인 환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다. 현재까지 총 11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하이메디는 이번 투자금을 글로벌 시장 확대에 활용할 계획이다. 중증은 물론 성형, 뷰티 수요가 높은 동남아 시장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및 프로모션을 실시할 계획이다.